



SUNG KYUNKWAN UNIVERSITY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교정신(儒教精神)을 건학이념(建學理念)으로 하는 성균관대학교는 1958년 대동문화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오랫동안 동아시아 학 진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본교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2000년 3월 1일 창설된 동아시아학술원은 이제 국제 동아시아학 학계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분과별 학문 체계를 묵수(墨守)하지 않고, 통합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활동

학술대회 · 연구포럼 · 특별간담회 · 집중강좌
초청특강 · 연속 세미나 · 워크샵 등

연구

출판 · HK+연구성과 · 동아시아학 REVIEW

교육

동아시아학과 ·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 IUC(Inter-University Center)
HK+지역인문학센터 · 한국학연계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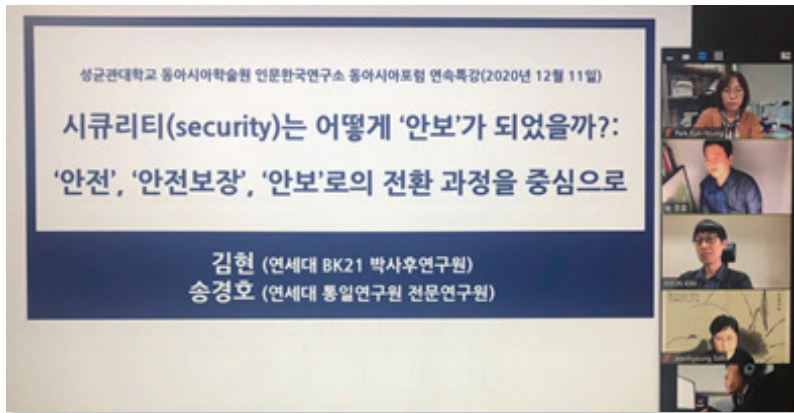
소식

기관 · 연구진 · 매체 보도

초청특강 <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

HK+연구소는 학계를 선도하는 중진 및 신진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하고자 매 학기 '동아시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근대 동아시아 담론장의 재구축과 확장> 주제의 마지막 강의로 “安保” 개념의 탄생을 다룬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 제목	강연자	소속	일자	장소
시큐리티는 어떻게 '安保'가 되었을까? : '안전', '안전보장', '안보'로의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김현	연세대	12.11	600주년 기념관 504호 온라인 (Zoom) 동시 진행
	송경호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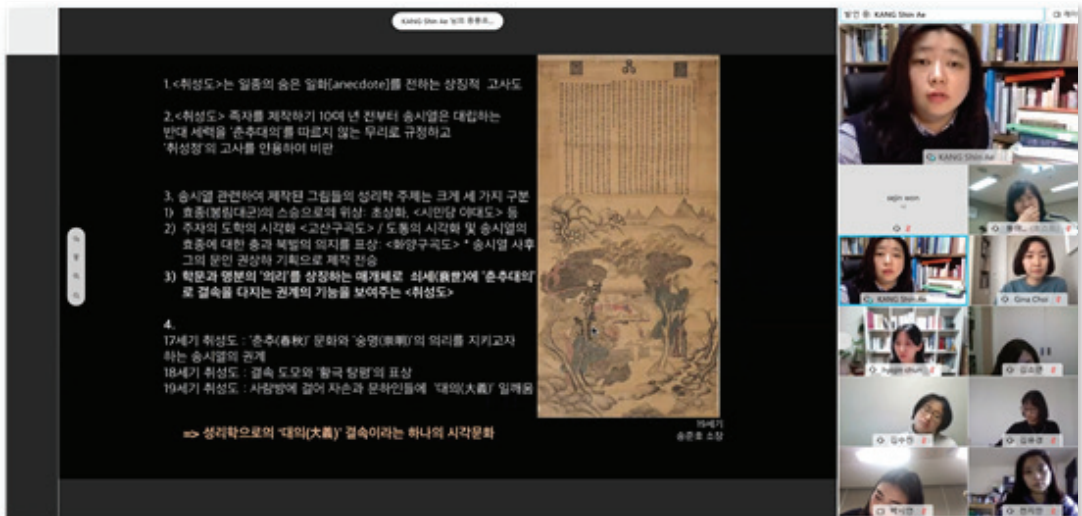
연속 세미나 < HK+연구소 Research Cluster

R/C명(책임자)	내용	일자
19세기 동아시아 (배향섭)	조선대 재난인문학 연구단과 공동 세미나 진행 (총 8회 / Zoom온라인)	2020.12.07 ~ 2021.02.08
근대 동아시아 '고전(古典)'들의 재인식 (박은영)	(영서) 『서양을 번역하다』 번역서 출간 관련 개념어, 용어 등 정리	2021.01.20
	(일서) 『번역된 근대』 (영서) 『서양을 번역하다』 번역서 출간 준비 최종 확인	2021.02.08
회화사 연구 (고연희)	동아시아회화사와 젠더(1)	2020.12.30
	동아시아회화사와 젠더(2)	2021.02.26

국제학술회의 < 동아시아의 상상과 시각적 표상

HK+연구소는 제2회 신진학자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의 상상과 시각적 표상>을 개최하였다. 지난 제1회 <동아시아의 기록과 표상>에 이어 정례 국제학술회의로 진행한 본 행사는 신진학자들의 발표와 전문학자들의 지정 토론으로 구성된 심도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00
- 장소 : Webex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공동 세미나 < 2020년 중국정세 평가 및 2021년 전망

성균중국연구소는 현대중국학회와 공동으로 <2020년 중국정세 평가 및 2021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2020년의 중국 정세를 평가하고 2021년의 중국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합토론 시간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열띤 논의로 채워졌다.

-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14:0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현대중국학회
- 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초청 좌담회 < 2021년 한반도 정세의 전망 : 중국의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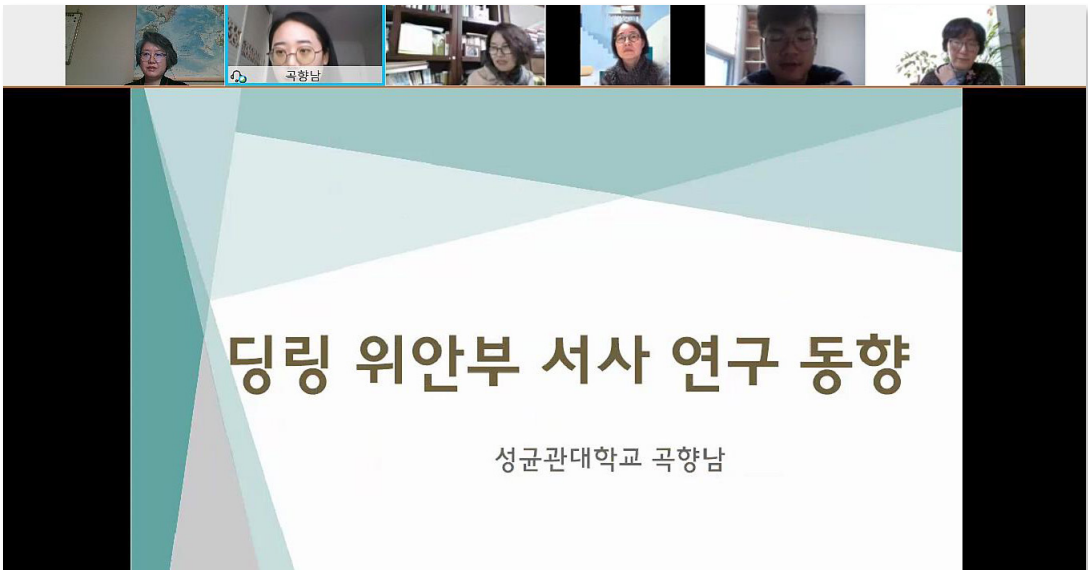
성균중국연구소는 새해를 맞아 <2021년 한반도 정세의 전망 : 중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중국학자들을 초청해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지속되고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지역정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과 도전에 대해 중국의 시각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일시 : 2020년 12월 28일(월), 16:0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국내학술회의 <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와 냉전의 성 정치

HK+연구소는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와 냉전의 성정치>를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와 중국의 위안부 서사' 그리고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과 성 정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 일시 : 2021년 1월 16일(토), 13:00
- 장소 : Webex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

성균중국어연구소는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한·중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지속되고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지역 정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과 도전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미동맹에 대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4:3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어연구소,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내학술회의 < 현실의 인간에서 이상의 인간으로 : 순자학의 재검토

유교문화연구소는 새해를 맞아 유학동양한국철학 4단계BK21연구단과 공동으로 학술회의 <현실의 인간에서 이상의 인간으로 : 순자학의 재검토>를 주최하였다. 오전 세션은 학문후속세대 성과 발표와 논평으로 두 부분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오후 세션은 전문 연구 성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순자학에 대한 다채로운 성과가 보고된 자리였다.

- 일시 : 2021년 1월 28일(목), 10시
- 장소 : Webex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 유학동양한국철학 4단계 BK21연구단

공동심포지엄 < 아시아의 재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례 공동심포지엄 <아시아의 재해>는 재해의 기억과 기록에 관한 문제, 재해와 국제협력에 관한 문제, 정치적 상황이나 제도가 재해나 그 대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 8편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재해에 대비하는 인적·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정치체제와 재해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적되었다. 또한, 재해에 대한 사회적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온라인(ZOOM)으로 치러진 본 심포지엄은 온라인 국제학술회의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0:3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연세대 국학연구원 ·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 주관 :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국내학술회의 < 일하는 몸들의 세계



HK+연구소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 <일하는 몸들의 세계>를 주최하였다. 서비스/돌봄/노동의 젠더 정치를 주제로 「냉전의 천사들», 「취약한 노동, 취약한 신체- 동시대 · 한국영화의 젠더와 노동», 「능력주의, 노동, 그리고 젠더-SF와 세계의 끝」 등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노동의 문제를 다룬 시간이었다.

-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13:0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서강대학교

국내학술회의 < 한국 근대 전환기의 공동성(共同性)과 재난

HK+연구소는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사업단과 공동으로 학술회의 <한국 근대 전환기의 공동성과 재난>을 주최하였다. 민중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조선후기와 일제시기까지의 재난과 공동성의 구체적 현상을 살폈다.

- 일시 : 2021년 2월 22일 (금), 13:3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사업단

학술프로젝트 < 푸단대 공동 출판기념회 및 공동 학술 프로젝트 <중국의 길> 중간보고회

성균중국연구소는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과 함께 공동세미나 겸 출판기념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푸단대학교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 원장인 쑤창허 교수를 비롯한 상하이 정치학계를 이끄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이론계를 대표하는 푸단대학교 주첸웨이 교수의 『중국의 공공개혁: 개혁과 현대화』와 류젠쥬 교수의 『전환시대 중국정치의 논리』한국어판 출판기념회 및 서평회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주제를 둘러싼 학술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4:30-18:30
- 장소 : 온라인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푸단대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



1. 출판

【신간】



이상과 현실 사이: 중국의 동아시아 협력, 장원링 저, 이희옥 외 역, 책과함께, 2021.01.25



전환시대 중국정치의 논리, 류젠 쥘 저, 이희옥 외 성균중국연구소 역, 성균관대출판부, 2021.01.29



중국의 행정개혁: 혁신과 현대화, 주첸웨이 저, 이희옥 외 성균중국연구소 역, 성균관대출판부, 2021.01.29



(유교문화연구총서 24) 시대 속의 맹자, 주제 속의 맹자, 김도일 외 저,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2021.01.31

【연속간행물】

- 『대동문화연구』 112집(2020.12)
수록 논문 : <https://ddmh.skku.edu/ddmh/institute/search.do>
-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57호(2020.12)
수록 논문 : <http://115.145.133.96/china/#/sc/brief?sclid2=133>
- 『성균차이나브리프』 통권58호(2021.02)
수록 논문 : <http://115.145.133.96/china/#/sc/brief?sclid2=135>
- 『成均中國觀察』, 总第33期, (2021.01)
수록 논문 : <http://115.145.133.96/china/#/sc/research?sclid2=139>
- 『중국사회과학논총』 제3권 제1호(2021.02)
수록 논문 : [http://115.145.133.96/china/#/guide/last-issue?sclid1=5&sclid2=140&sc=\(5%20OR%209%20OR%2010%20OR%20128%20OR%20132%20OR%20140\)&max=20&offset=20](http://115.145.133.96/china/#/guide/last-issue?sclid1=5&sclid2=140&sc=(5%20OR%209%20OR%2010%20OR%20128%20OR%20132%20OR%20140)&max=20&offset=20)

2. HK+ 연구성과(2020.12~2021.02)

■ 고연희 교수

- 「식물 이미지의 정치성(政治性), ‘세한삼우(歲寒三友)’와 ‘매죽(梅竹)」, 『미술사학보』 55(2020.12)
- 「고전과 경영 조선 왕실의 그림책 예원합진, 아트북스, 2020.12.18.
-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 한국회화사를 돌아보다』(공저), 아트북스, 2021.01.10
- 「조선 왕실 繪畵의 ‘公共性’ -民을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0(2021.02)



■ 고은미 교수

- 「중국어 상인의 일본 정착-11~13세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48(2020.12)

■ 김경호 교수

- 「『資料』 연구로 본 동아시아학술원 20년 - 戶籍과 簡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2(2020.12)

■ 박은영 연구교수

- 「15년전쟁 하 일본 기독교의 전쟁 협력 - 전후 ‘전쟁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 『일본사상』 39(2020.12)
- 「COMPETITION AND HARMONY: Kato Hiroyuki's Naturalism and Ethics for Modern Japan」, 『DHARMARAM COLLEGE』 45(2020.12) (교신저자, 저자 2인)
- 미야지마 히로시, 『한중일 비교 통사: 역사상의 재정립이 필요할 때』 (역서), 너머북스, 2020.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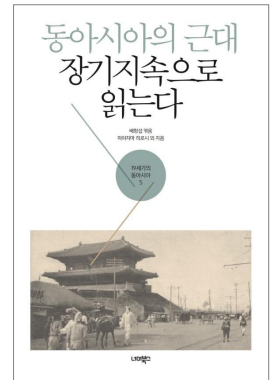


■ 박이진 교수

- 「하프, 또 하나의 일본인론 - 현대 일본 인종주의의 ‘전후적’ 기원 -」, 『일본문화연구』 77(2021.02)

■ 배향섭 교수

-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사' 연구와 새로운 역사상의 모색 -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 비판과 트랜스히스토리칼(transhistorical)한 접근」, 『대동문화연구』112(2020.12)
-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다 : 19세기의 동아시아 5』(공저), 너머북스, 2021.2.28.
- 「c-19의 팬데믹과 새로운 역사 이해: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생각한다」,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재난인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2021.02.03.~02.05, 온라인(Zoom)/오프라인 병행
- 「민중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과 공동성(共同性)」,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조선대학교 재난인문학사업단 공동 학술회의 <한국 근대 전환기의 공동성(共同性)과 재난>, 2021.02.22, 온라인(Zoom)



■ 손병규 교수

- 「20세기 전반 농촌 가족의 거주이동 -계층성과 혈연성의 관점에서」, 『대동문화연구』 112(2020.12)
-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다 : 19세기의 동아시아 5』(공저), 너머북스, 2021.2.28.

■ 손성준 연구교수

- 「세계문학과 민족문학 사이」,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BK21 FOUR 제1회 국제학술대회 <다중심 사회의 가치와 지역어문학의 창조적 미래 모색>, 2021.02.05., 온라인(Zoom)
- 「세계문학과 민족문학 사이: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 주체의 항방, 흥명회의 경우」, 『코기토』 93(2021.02)
- 『문화의 횡단과 메타모포시스: 시간. 장소. 매체』(공저), 선인, 2020.12.30



■ 이영호 교수

- 「창계 임영의 因文入道論 고찰」, 『민족문화』 56(2020.12)
- 「동아시아학술원 20년 철학방면 연구성과 - 유학과 경학 방면 연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2(2020.12)

■ 이혜령 교수

- 「동아시아 근대 매체, 언어, 검열 연구의 궤적과 미래」, 『대동문화연구』 112(2020.12)

■ 임우경 교수

-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 : 대만 '특약다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HK+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동아시아 군 '위안소'의 연쇄와 냉전의 성 정치>, 2021.01.16., 온라인(Zoom)

■ 임태승 교수

- 「叛亂家臣 應對에 나타난 孔子의 權道와 出仕觀」, 『동양철학』 54(2020.12)

■ 정승진 교수

-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다 : 19세기의 동아시아 5』(공저), 너머북스, 2021.2.28.

■ 조민환 교수

-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의 '성령(聖靈)을 성령화(性靈化)한 서예미학' 연구」, 『동양예술』 50(2021.02)
- 「동양의 광기와 예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12.30



■ 조성산 일반연구원

- 「18세기 중후반~19세기 조선 주자학 지식인들의 천(天) 인식과 서학(西學) 대응」, 『한국사연구』 191(2020.12)

■ 진재교 일반연구원

-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 · 교육의 통합 모델과 그 성과」, 『대동문화연구』 112(2020.12)
- 「滄溪 林泳의 漢詩 研究 -自己 省察과 求道의 情感-」, 『민족문화』 56(2020.12)
- 「조선조 후기 類書의 형성과정과 지식·정보 분류의 知識史」, 『한국실학연구』 40(2020.12)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성과와 전망」, 『동양학』 52(2021.01)

■ 천정환 일반연구원

-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2)-『노동자의 이름으로』에 나타난 열사, 진정성 그리고 1990년대-」, 『반교어문연구』 56(2020.12)

3. 동아시아학 REVIEW

한중일 비교 통사 | 미야지마 히로시 저, 박은영 역 | 너머북스 | 2020.12.11

일국사를 넘어선 역사읽기, 중 · 일 이질론과 한국사의 전략적 위치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2013)에 이은 역작 『한중일 비교 통사』를 냈다. 전작이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이란 역사상을 처음으로 소개하며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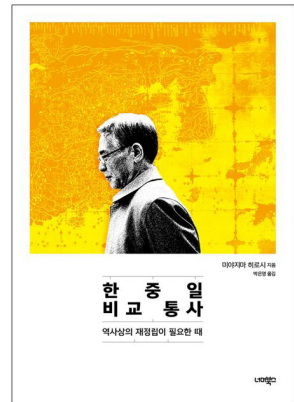
선시대와 한국사의 특징을 밝혀냈다면 신작은 한중일과 베트남, 류큐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며 소농사회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논증하는데, 특히 한중일의 정치적 혁신과 동아시아 경제 혁명, 그리고 집약도작 등이 주목된다. 알려진 것처럼 동아시아 소농사회론은 동아시아 전통사회를 소농사회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의 역사담론이다.

『한중일 비교 통사』책의 전반부는 14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한중일 통사다. 한중일 각국이 오늘날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동시에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대로, 일국사를 넘어선 역사읽기로 우리와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후반부는 앞의 통사에서 도출된 핵심 주제를 심화하여 읽는다. 동아시아 연구사 비판, 정치적 혁신의 문제, 경제 혁명과 집약적 농업의 성립,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의 변화 등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중일 삼자 비교다. 미야지마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책에서 시도한 ‘역사의 삼각측량’은 중국의 영향을 깊게 받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도 새롭게 재검토해 보려는 방법”이라며, 한중일 비교사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상을 찾자고 제안한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에 공통되는 ‘국사’라는 강고한 틀이 있다. 곧 태고 이래로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라는 것이 존재했던 것처럼 통사로 서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동아시아를 총체로서 파악하는 역사연구가 부진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중·일 이질론’이다. 이는 봉건제론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탈아론에서 기인한 것인데 저자는 일본 봉건제론이 러일 전쟁기에 나온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한국학계의 이른바 ‘내재적발전론’이 내재적 요인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한국사의 전개를 동아시아 세계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련을 중시하는 것 자체를 타율성론이나 정체론과 동일시하는 풍조가 강했다는 것이다. 미야지마 교수는 이러한 국수화, 쇠국화 경향이 그 배경에 서구의 발전모델을 따르는 데 있다며 이제는 서구모델과 일국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상의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습관이 오래되면 마침내 천성이 된다(習與性成)’고 하듯이 50여년 한국사 연구를 하면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의 특징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토로하는 미야지마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양자의 비교에서는 이질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에도 이 둘의 중간에 한국을 놓고 보면 양자가 그 정도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 현상들이(예를 들어 신분제, 마을의 양태 등) 많은 것처럼 한국사 연구는 한중일의 이질론을 비판할 때 전략적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중일 비교 통사』는 역사연구와 서술에서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IUC “외국인 한국학 언어 연구의 성과와 문학 / 문화 연구의 방향” Colloquium

IUC는 <외국인 한국학 언어 연구의 성과와 문학 / 문화 연구의 방향>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 고급학술한국어과정에 참여했던 외국인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충실한 필드워크 결과와 고급학술한국어과정의 성과를 결합해 발표를 하였다. 5명의 신진 외국인연구자들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1. 아나스타샤 드라보브스카(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타향 살이>를 통해 본 한국인의 고향관: 어휘개념 ‘고향’ 분석을 중심으로”
2. 에드워드 보트(호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망월사본 『진언집』 실담 문자의 한글 음운 표기법을 통해 본 조선 불교계의 독송법”
3. 니콜 린(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일제 강점기에 여성 작가로 산다는 것 - 최정희의 친일 문학 동기에 관한 고찰”
4. 일라이 알렉산더(미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서울 젊은 게이 남성들의 소속감 형성을 위한 공간, ‘종로’”
5. 마리나 코제브니코바(러시아, 우랄연방대학교)
“한국 문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특징을 통해 살펴 본 한국 ‘문화 코드’ 연구”

-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09:30
- 장소: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IUC <한국학 연속 특강 – 한국학 영어 에세이/아티클 글쓰기 심화과정

IUC는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총 12회에 걸친 영어 에세이/아티클 글쓰기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한국학 영어 에세이/아티클 글쓰기 이후 개설된 심화 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심도있는 영어 글쓰기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 강사 : 일라이 알렉산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문화인류학 석사, IUC 펠로십)
- 일시 : 2020년 11월 30일-2021년 1월 13일 (총12회) / 월, 수 15:00-17:00
- 장소 : 성균관대 국제관 3층 90307호
-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IUC,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BK21+

한국학연계전공 제1회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 대회 시상식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는 한국학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학생들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1월 “제1회 한국어 온라인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학생들의 대회 참여가 이루어졌고, 12월 21일 수상자 학생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가작 4명의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의 금상에는 정치외교학과의 김월동 학생이 선정되었다.



- 일시 : 2020년 12월 21일
- 장소 :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IUC 한국학 연속 특강 -한국학 영어 논문 작성법 기초과정

IUC는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총 8회에 걸친 영어 에세이/아티클 글쓰기 기초과정을 개최하였다. 학술적 영어 글쓰기를 훈련하거나 국외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참여하였다.

- 강사 : 에드워드 보트(옥스포드 대학교, IUC 펠로십)
- 일시 : 2020년 12월 21일-2021년 1월 13일 (총8회) / 월, 수 10:00-12:00
- 장소 : 성균관대 국제관 3층 90307호
- 주최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IUC,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BK21+

IUC 한국학 연속 특강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학술 글쓰기 및 한국 현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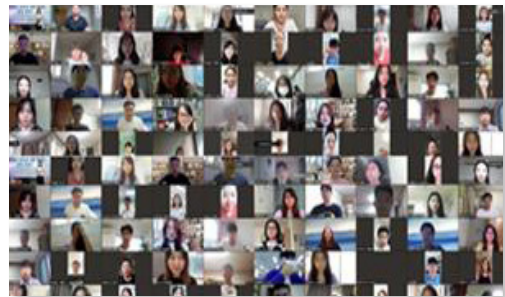
IUC는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16회에 걸친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학술 글쓰기 및 한 현대사 특강을 개최하였다. 고급 한국어 수준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술 논문의 작성과 시대별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강사 : 정희정 (동아시아학술원 IUC 주임교수), 허선희 (동아시아학술원 IUC 전임강사)
- 일자 : 2021년 1월 4일-1월 28일(총16회)
- 장소 : 600주년기념관 국제관 3층 90307호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IU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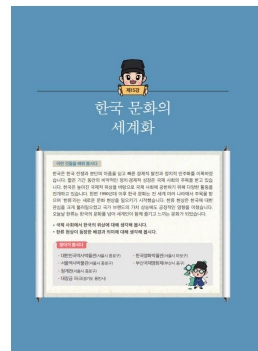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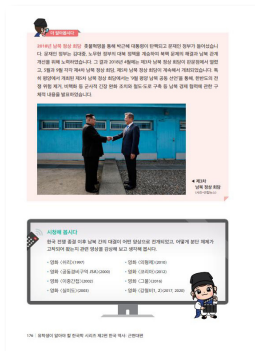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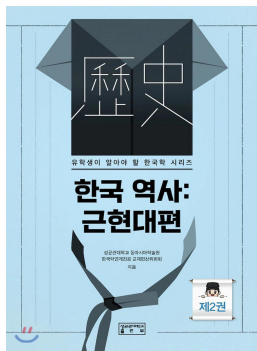
성균중국연구소 < 중국인유학생 성공센터 차담회

성균중국연구소는 코로나 상황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차담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어로 진행된 차담회에서는 성균중국연구소의 연구교수와 연구원 9명이 분야별로 멘토가 되어 중국 유학생들의 상담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줄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성균중국연구소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었다.

-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15:00-17:00
- 장소 : 텐센트 회의
-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연계전공 <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2권 출간



한국학연계전공 교재편찬위원회(김경호, 박이진, 박은영, 손성준)는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제2권 『한국 역사 : 근현대편』(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2)을 출간하였다. 본 시리즈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역사를 다룬 제1권(전통편)에 이어 제2권은 대한제국기부터 현재까지를 ‘해방과 민족 분단’, ‘한국 문화의 세계화’ 등 15가지의 주제와 함께 소개한다. 한국학연계전공 교수 11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네이버 ‘요즘 뜨는 새책’ 코너에도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학위논문 주제를 포함하여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동아시아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고연희 교수님께 석사과정을 지도받아 이번 2월 졸업한 원세진입니다. 「종규(鍾馗) 도상(圖像) 연구」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논문의 주제인 종규 도상은 전근대 동아시아 문화에서 영세집복(迎歲集福)을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8세기 도상 형성을 시작으로 20세기까지 한·중 양국에서 다양하게 변화된 양상을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정리

및 종합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학기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석사과정 들었던 강의 전부가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사과정부터 미술사라는 세부학문분과를 고집해왔던 제 자신이었기에 동아시아학과의 학제적 통합교육 및 연구 방식에 큰 기대를 가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자그마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학과에서 미술사학 전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첫 학기가 시작되고 이는 괜한 걱정거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술사학 뿐만 아니라 경학·철학·미학·사학 등 각 분야의 전공 강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과거를 종합적으로, 현상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희망하는 게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는 동아시아학과에서 더욱 단련하여 폭넓은 시야를 갖춘 학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아시아학과의 충실한 교육과정과 이외에도 다양하게 열리는 학술대회 등의 학술원 연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바라는 바는 위와 같고, 자그마한 희망이라기보다는 그저 온전하게 바라는 바로는 지금의 아픈 시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모두에게 건강한 때가 어서 빨리 와준다면 좋겠습니다.

1. 기관

성균중국어연구소 < 2020년도 공공외교 아이디어/ucc 공모전 결과 발표회

성균중국어연구소에서 2020년도 공공외교 아이디어/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12월 16일에 우수자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공모전은 21세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로 지난 11월 개최되었다. 우수자 결과 발표회에서는 총 16인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으며, 학생들과 성균중국어연구소 연구원(이희옥 소장, 장영희 연구교수, 최혜주 연구원)의 상호 평가로 이뤄졌다.

유교문화연구소 < 필립 아이반호 JCPC 편집장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리스트에 선정

필립 아이반호(Philip J. Ivanhoe)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전 석좌교수 및 현 방문 석좌교수가 AcademicInfluence.com에서 발표한 '오늘날 가장 영향력있는 철학자'에 선정되었다. AcademicInfluence.com은 머신 러닝 기술로 세계적인 저명 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끼친 영향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산정하며, 이번 선정을 통해 아이반호 편집장은 현 시대 동양철학 연구자로 대표되었다. 유학을 일종의 덕 윤리로 해석한 것이 주요 연구 성과로 꼽혔다. 아이반호 편집장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전 석좌교수로 재임한바 있고 현 방문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다.

유교문화연구소 < Youtube채널 오픈

유교문화연구소는 12월 Youtube채널을 오픈하고, 오픈 이벤트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Youtube URL

<https://www.youtube.com/channel/UCOwgTv5NorrY09TPUpuN-HA>

2. 연구진

• 김영죽(대동문화연구원)

[강연] 상우(尙友) 강의 '논어집주' 원전 강독, 2020.12.18~2021.2.5 매주 금요일/
풍산빌딩 701호

- 안대회(대동문화연구원)

[인사] 대동문화연구원장 퇴임 / 2020.12.31

[출판]



『택리지 평설』,
휴머니스트,
2020.12.07



『다행히도 재주 없어
나만 홀로 한가롭다』,
산처럼, 2020.12.31
(※큰글자책)

- 정우택(대동문화연구원)

[인사] 대동문화연구원장 취임 / 2021.1.1.

-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인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장 취임

-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수상] 교육부 장관상(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3. 매체 보도

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 성균한국인문학협의회 출범”, 한국대학신문, 2021.02.17.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4627>

“성균관대, 제1회 ‘성균한국인문학 학술대회’ 연다”, 교수신문, 2021.02..17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52>

“성균한국인문학협의회 출범 및 제1회 성균한국인문학 학술대회 개최”, 대학저널, 2021.02.17.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09>

대동문화연구소

“남양주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쩌다인문학'...랜선강좌 운영”, 매일일보, 2020.12.03.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2154>

성균중국연구소

“[차이나인사이드]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과 미국 ‘민주주의 서밋’ 충돌하나”, 중앙일보, 2020.12.23.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477>

“중국 속으로”, 제주의소리, 2021.01.2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087>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인유학생 성공센터 차담회 개최”, 한국강사신문, 2021.02.09.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67>

유교문화연구소

“‘힘내소! 신축년’... ‘수퍼 흰 소’ 기운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 중앙일보, 2021.0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960023>

고연희(동아시아학술원)

“물러날 때를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 그림이 된 고전의 메시지”, 세계일보, 2020.12.28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8504756?OutUrl=naver>

“그림으로 옮겨진 사건 · 일화... 선조들의 메시지를 엿보다”, 세계일보, 2020.12.29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8512359?OutUrl=naver>

“책과 지성 –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 충북일보, 2021.01.07. ; 조선일보, 2021.01.09. 등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50818>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1/01/09/ELEU32VCBBFWNMDAAPUZOYLHMU/>

“시대의 삶과 꿈, 정선 · 김홍도를 발견하다”, 세계일보, 2021.02.1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5514100?OutUrl=naver>

김용태(동아시아학술원)

“파주시,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인일보, 2021.01.27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807>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조선대, '재난인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학저널, 2021.02.01.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46>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학술 ·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성과 공유 통한 ‘자긍심 고취’”, 한국대학신문, 2020.12.16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512>

“온라인으로 전세계 연구자와 지역어문학 논의”, 전남일보, 2021.02.02. 등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20121172340185>

안대회(동아시아학술원)

“12월 11일 학술 새 책”, 한겨레, 2020.12.10.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73738.html>

“이중환은 왜 강변을 名村으로 꼽았을까”, 조선일보, 2020.12.12.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0/12/12/6XWZ75PAHBBG3DEJL5BLXQ2LL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택리지 평설”, 교수신문, 2020.12.21. 등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9062>

조민환(동아시아학술원)

“미치광이 광의 정신 긍정적인 첫 동양사상가는 공자이죠”, 한겨레, 2021.01.25.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980318.html>

“[조용헌 살롱] [1282] ‘미친놈’의 미학”, 조선일보, 2021.02.01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2/01/5JF4IP42U5BV7DD654DGN3IAF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1 성균관대학교 인문학 강좌 “넥스트 노멀시대, 인문학에서 지혜를 구하다” 성료”, 한국강사신문, 2021.02.16.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75>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장)

[이희옥 칼럼] 질문에 능한 CEO를 호명하는 시대, 서울경제, 2020. 12. 1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0II6BX>

“中国に厳しくなれない韓国 背景に文氏のレガシーづくり”, 아사히신문, 2020. 12. 25

<https://www.asahi.com/articles/ASNDS3G2CNDQUHBI018.html>

[이희옥 칼럼] 바이든-시진핑 시대를 사는 법, 서울경제, 2021. 2. 16

<https://www.sedaily.com/NewsVlew/22IJZELRQR>

“전략문화’ 관점에서 제시한 한국 외교안보전략 방향”, 연합뉴스, 2021.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39400005?input=1195m>

[한중비전포럼] “미·중 택일할 게 아니라 한국의 원칙과 입장 세워야”, 중앙일보, 2021.0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98574>